

빛과 어둠에 드리워진 '사이'...우제길 '60년 색'을 만나다

5월12일까지 광양전남도립미술관 초기작부터 신작·아카이브자료까지 100여점 전시...4월 작가와의 대화

"나는 선(線) 중에서도 직선을 가장 사랑한다. 그 이유는 모두 그렇듯, 직선이 갖는 의미는 강직하다든지 강인한 성격을 지닌 때문일 것이다. 이는 내 스스로 갖고 있는 내성적인 여러 결함들 때문에 직선을 사랑하고 그 직선의 곁에서 떠나려 하지 않는 지도 모른다."

우제길 작가가 '직선'을 모티브 삼아 창작활동을 하는 이유다. 그의 말대로 그는 내성적인 사람이다. 정적이다. 내면으로 파고드는 성향이나 기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품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 작품을 향한 열망, 창작의 세계로 나아가는 힘은 역동적이다. 내적인 에너지가 작품에 응결돼 직선으로 발산

되는 것이다. 일련의 예술가들처럼 그 또한 개인적인 내향성을 외적인 작품 세계로 승화시켰다.

광양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에서 마주하는 우제길의 작품 세계는 경이롭다. '우제길: 빛 사이 색' (5월 12일까지)이라는 전시 주제는 그의 예술세계와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빛과 어둠에 드리워진 어떤 '사이'를 끊임없이 헤쳐 온 작가의 지난한 세월이 작품 '사이사이'에 투영돼 있다.

이지호 관장은 "이번 전시는 일평생 빛을 쫓아 작품 활동을 펼쳐온 우제길의 화업을 조망할 수 있는 계기"라며 "작가가 추구했던 '빛'과 '색'을 관람객들이 저마다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자가 방문한 지난 7일, 전시장에는 광양을 비롯해 인근 순천, 여수 그리고 영남에서 온 방문객들 모습이 눈에 띈다.

작품은 파노라마처럼 전시장을 따라 연결돼 있다. 1960년대 이후 초기 대표작부터 다채로운 색채가 돋보이는 2024년 신작, 아카이브 자료까지 모두 100여 점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빛'으로 변주된 다양한 작품을 보면서 문득 우제길이 꿈꾸었던 '빛 사이 색'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본다.

한글과 함께 영문으로 표기된 'LIGHT SPACE COLOR'는 좀 더 깊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빛과 색 사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혹은 '시간과 공간 사이'가 아닐까. 빛은 이내 사라지는 반면 색은 그대로 남아 존재를 증명한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금세 흔적 없이 흩어지지만 공간은 여전히 남아 실존의 역사를



우제길 초대전: 빛 사이 색 전이 오는 5월 12일까지 도립미술관에서 열린다.

대변한다.

"어린 시절 동네 형들이 어둠 속 무언가를 쫓아 뛰어다니곤 했다.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나중에는 반딧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빛을 잡기 위해 뛰어다녔던 그 유년의 기억은 평생 빛을 추구하는 창작의 동인이 되었던 것 같다."

1942년 일본 교토에서 출생한 작가는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광양과 광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낸다. 광주서중을 거쳐 광주사범학교에 입학하면서 한국 영프렐 대표작가인 양수아를 만나 추상미술에 눈을 뜬다. 교사로 부임 후 1992년까지 교직생활과 작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주경야작'(晝耕夜作)의 삶을 산다.

특히 1960년대 후반 호남지역 추상미술의 거점 역할을 한 '애보코' 회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실험적 작업을 시도했다. 1972년 제8회 전라남도 미술전람회에서 추상화가 최우수상 수상, 1976년 한

국미술대상전 특별상을 수상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추상 화가로 발돋움한다.

전시는 작업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5부로 구성돼 있다.

1부 '기하학적 추상의 시작'은 1960년대-1970년대까지 추상이 탄생하기 전 작품을 소환한다. 2부 '어둠에서 찾은 빛'은 면의 틈 사이로 솟아나는 빛 작품들, 어둠을 배경으로 형성화된 대작들을 소개한다.

새로운 조형의 확장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다. 3부 '새로운 조형의 빛으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수평적 구조에서 산형, 침탑형 등 구도 변화를 시도한 그림이 추가 된다. 4부 '색채의 빛'은 한국 고유의 색에서 착안한 원색의 빛을 플라주와 데이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마지막 5부 '지지 않는 빛'은 평생 빛을 쫓아온 우제길 작가의 신작들이 관객을 맞이한다.

특히 이전에는 면을 토대로 빛을 형상화했다면 근래의 작품은 빛을 중심으로 면을 구조화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색채가 주는 화려함, 조형성을 가미한 선과 면의 변주는 한마디로 '빛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던 그의 삶을 기호화한다.

우 작가는 "창작이 나는 무엇인지 모른다. 다만 이 작업을 한다는 게 즐겁고 제작을 하는 동안 편안해서 좋다"며 앞으로도 작업에 전착하겠다고 말한다. 전상 작가다. 아니 예술가다.

한편 김소라 학예연구실장은 "우제길 작가는 평면 회화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작품을 역동적으로 구현해왔다"며 "빛과 색 그리고 사이'가 함의하는 다채로운 의미를 일상과 연계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4월 중 작가와의 대화가 예정돼 있으며,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술관 누리집 참조.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Light 2024-2A'

세계시민적 관점 '시민자유대학' 봄학기 강좌 열린다

4개 과목 개설...철학·정치·예술 등

평화 인문학, 시인 이성복, 수학의 길, 영화와 평화...

세계시민적 관점으로 열린 대학을 지향하는 시민자유대학이 봄학기 다채로운 강좌를 마련했다.

5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학기는 4개 과목에 걸쳐 다양한 강좌가 개설돼 시민을 맞는다. (자유를 꿈꾸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은 시민자유대학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먼저 월요일(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오후 7시)에는 '사회와 철학' 시간으로 '평화와 평화들: 평화 인문학으로 다원적인 평화 감각키우기'를 주제로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외 5명이 강사로 나선다. 장소는 광주교육연수원 기쁨과 중강당.

이번 강좌는 갈등과 폭력이 만연한 오늘날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철학, 정치, 사회,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박구용 교수 외에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임의진

시인(월드무직 연구가), 최지는 TBS 전략기획실 아나운서팀 아나운서, 정주진 평화공동체연구소장, 류도향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등이 강의를 펼친다.

화요일(5일부터 4월 23일까지, 오후 3시)에는 '동서양 고전' 시간으로 '고백의 형식들: 시인 이성복 읽기'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이선아 시민자유대학 교육부장이 이매진 도서관에서 '사람은 시없이 살 수 있는가' 등을 모티브로 시민을 만난다. 대부분 어렵게만 생각하는 '수학'을 흥미로운 문화로 풀어내는 시간도 있다. 수요일(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오후 7시 온라인 실시간 화상 강의) 열리는 '과학과 생명' 시간도 그것. 박병하 수리논리학 박사가 '수학의 길, 길의 수학'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목요일(7일부터 4월 25일까지, 오후 3시) '목요일네마: 영화와 평화의 시간'은 시민자유대학 거점공간인 장덕동 근대한국(광산구 장덕로 96번길)에서 열린다. 최송아 사무국장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괴물', '가족의 탄생', '올 리브 올립', '아메리칸 셰프', '길위에 김대중' 등 영화를 매개로 서로



'길위에 김대중'

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진행한다.

최 사무국장은 "전쟁을 그린 또는 전쟁 같은 관계 등을 담은 영화 8편을 감상하고 '평화'를 논의하는 장"이라며 "저마다의 입장에서 전쟁을 겪는 인물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라이브 페인팅, 마임, 판소리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공연 '신유배 기행' 연습 장면.

<예술이백그라운드 제공>

예술이백그라운드, 15일 '신유배 기행'

공연계에 1~3월은 '흑한기'와 같다. 문화예술 기관의 지원사업 발표가 보통 2월 말이고 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공연이 시작되는 게 일반적이다.

공연 흑한기나 다름없는 3월에 특별한 무대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예술이백그라운드가 주최·주관하는 '신유배 기행'이 바로 그것.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이백그라운드.

공연명은 라이브페인팅 퍼포머/한국화가 신은미, 대한민국 1세대 마임리스트 유진규, 판소리 명창 배일동의 초청을 각각 받았다. 예술의 '유배기'와 같은 기간을 장르 융복합 공연으로 채워 '신유배' 풍속도를 그리겠다는 취지다.

신은미는 수묵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한국화를 그리는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2022년 '화랑' 라이브페인팅 단독공연을 비롯해 지난해 초대개인전 및 원화전 '자연친화적'을 더컬러갤러리(서울)에서 진행했다.

아시아 1인극체 '거창' 예술감독이기도 한 마임리스트 유진규의 마임 공연도 볼 수 있다. 유

씨는 '춘천 마임축제' 전 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요선예술시장', '밤의 기행', '억울한 도둑' 등으로 관객들을 만나 왔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명창 배일동의 소리도 흥을 더한다. 배 명창은 제1회 사야국악상을 수상했으며 뉴욕 링컨센터,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지에서 초청 공연을 펼친 바 있다. 이 밖에도 광주의 평화와 연대 등을 그리는 '에플러' 팀, (사)우리문화예술원 김태훈 대표의 전통 가야, 이치현 도예가의 도자 전시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당금 대표는 "우리의 열과 혼을 담은 한소리 한바탕부터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마임, 몰입감을 선사하는 라이브 페인팅까지 다양한 공연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라며 "공연가에 보릿고개 같은 이 시기에 '신유배 기행'이 광주 예술인들의 창작열정을 북돋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감동후보제. 예술이백그라운드 예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ACC, 아카이브 연구 모임 참가팀 29일까지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아카이브 연구 모임 참가팀을 모집한다.

ACC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CC 아카이브 연구모임'을 운영할 총 3팀을 선발한다. 참가 희망팀은 오는 29일까지 ACC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연구모임은 ACC 소장 아카이브에 관심 있는 작가나 기획자, 활동가, 연구자 및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참가팀은 2인에서 10인까지 구성하며 연구주제는 ACC가 소장한 아카이브 전문 주제 컬렉션에서 선정하면 된다.

선정된 팀은 오는 12월까지 ACC 특별열람실을

모임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연구관련 아카이브 자료 열람,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우수 연구 선정 자료집 제작 등 지원을 받는다.

이강현 전당장은 "ACC는 아시아 문화예술을 연구하고 창작하는 문화예술인 및 연구자를 위해 소장 아카이브 열람, 복제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ACC 소장 자료에 관해 함께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원2길3(서원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